

아동 성학대에 대한 신화와 고정관념에 관한 연구

Myths and Stereotypes regarding Child Sexual Abuse

박 명 숙*

Park, Myung Sook

유 서 구**

Yoo, Seo-Koo

Abstract

For this study of adolescent attitudes toward child sexual abuse, 200 students attending high school and college participated in a group survey. The Child Sexual Abuse Myth Scale (Collings, 1999) was used to measure social attitudes toward child sexual abuse. Overall, the attitudes of the respondents placed between negative and positive attitudes. Nevertheless, strong negative myths and stereotypes, particularly blame diffusion, denial of abusiveness, and restrictive abuse stereotypes were found in specific situations. High school students and male students had more negative myths and stereotypes than college students and female students.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indicated the variables of education level and gender as the most important predictors in explaining students' attitudes toward child sexual abuse.

Key Words : 아동 성학대 (child sexual abuse), 신화와 고정관념 (myths and stereotypes), 사회적 태도 (social attitudes), 청소년 (adolescent)

※ 접수 2003년 8월 31일, 채택 2003년 10월 9일

* 교신저자 : 상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E-mail : mspark@mail.sangji.ac.kr

** Univ. of Texas at Austin, School of Social Work 박사과정

I. 서론

아동 성학대 문제는 비교적 최근에 와서 관심이 주어지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아동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Kilpatric et al. (Swenson & Hanson, 1998, 재인용)은 4000명 이상의 여성들에 대한 전화조사를 통해 그들 중 8명중의 한 명이 성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으며, 그러한 성폭행의 70% 이상이 18세 이전에 발생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최근 발표된 “2002년 전국 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 2003), 지난 2002년 한해동안 신고된 아동 성학대 사례수는 119건으로 전체 아동학대 신고사례의 3.2%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성학대의 성격상 신고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비교적 높은 수치라고 할 수 있으며,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은 성학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추정할 수 있다.

이처럼 아동의 성학대는 모든 사회에서 존재하는 문제이며, 이는 Daro (1988)가 지적한 것처럼 부모의 수입정도나 가정의 내외적인 스트레스 상황의 유무와 상관없이 다양한 계층에서 존재한다. Daro는 아동의 성학대는 부모가 전문직에 종사하든지, 노동자 계층이든지, 또는 한부모나 양부모 가정이든지 상관없이 모든 경우에 나타날 수 있다고 하면서, 아동의 성학대 문제를 사회, 문화, 경제적인 영역의 모든 분야를 넘나드는 이슈라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아동의 성학대 사례를 분류할 때는 특정한 가족의 특성보다는 학대의 성격, 기간, 연령 등에 초점을 두고 연구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조언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일반적으로 아동에 대한 방임의 문제가 주로 빈곤의 기능으로서 이해되어진다면, 아동의 성학대는 사회문화

적인 요인과 밀접하게 관련되어진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성과 관련된 사회문화적인 규범이나 가치관, 또는 태도는 아동의 성학대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아동 성학대의 경우 신체적 학대와 달리 피해아동과 가해자가 밝히지 않는 한 그 징후를 발견하기가 어려워 피해상태가 악화 내지는 반복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아동의 성학대가 다른 학대유형보다 더욱 치명적이고 장기적인 신체적, 정신적 후유증을 동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할 때, 아동 성학대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사회적 개입이 요구되어진다고 하겠다. 미국의 “Systems of Care Program”¹⁾에 참여하고 있는 아동 및 청소년의 약 35%가 성학대를 경험했다는 보고 (CSWR : Center for Social Work Research, 2002)는 성학대가 향후 정신건강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내에서도 아동의 성학대 문제가 보다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사회적 개입을 요구하는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최근에 와서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나 실천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며, 특히, 한국의 문화적, 정서적인 특성으로 인해 성학대 문제는 개방적으로 논의된 적이 거의 없다. 특히, 앞서 언급한 것처럼 성학대가 사회, 문화적인 요인과 관련이 높다고 할 때, 성과 관련하여 한국사회의 경우 금기적 성문화와 쾌락적 성문

1) 미국 보건복지부 주도의 아동 및 청소년과 그 가족들을 위한 지역공동체 중심의 정신보건 프로그램으로 현재 22개 주에서 시행되고 있음.

화의 공존과 함께, 남성과 여성에 대한 상이한 성규범의 존재 등 이중적이며 가부장적인 성문화는 건전한 성의식을 형성하는데 혼란을 초래한다. 강현주(2001)는 이러한 한국사회의 이중적이며, 가부장적인 성문화 속에서 특히, 청소년들은 성적으로 아노미 상태를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의 전통적인 유교문화의 특성이 반영된 성에 대한 사회적 태도는 아동의 성학대 문제를 더욱 심화 또는 은폐시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아동의 성학대에 대한 사회문화적인 태도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개입을 모색하는 것은 아동을 성학대로부터 보호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보여진다. 특히, Maynard와 Wiederman(1997)이 지적한 것처럼, 아동의 성학대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는 “문화적인 고정관념 (cultural stereotypes)”에 의해 형성되어지는 경향이 있어, 이것이 성학대 신고 여부나 가해자 처벌, 서비스 제공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보다 중요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본 연구는 아동의 성학대 문제와 관련하여 이러한 사회문화적 태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아동의 성학대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를 조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아동 성학대와 관련한 일반적인 신화(myths)나 고정관념(stereotypes)을 중심으로 아동 성학대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는 사회적, 문화적 요인에 의해 형성되는 그릇된 신화나 고정관념이 아동 성학대에 대한 효과적인 개입이나 예방을 방해하는 일차적인 장애요인이 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고 있는 고등학생들이나 대학생들은 성인기로의 진입을 앞두고 있거나 성인초기에 속하는 계층이면서, 동시에 이들 계층의 대부분은 아직 제도적 교육권내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더욱이, Collings (1997)가 지적한 것처럼, 특정한 문제에 대해 개인이 가지고 있는 태도는 유사한 다른 문제에 대해서도 일반적으로 같은 반응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고 할 때, 아동의 성학대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이나 태도를 갖고 있다는 사실은 이후에 이들이 성인이 된 다음에 성 역할이나 가정폭력 등에 대해서도 잘못된 태도를 형성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예측하게 한다. 따라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아동 성학대에 대한 태도 조사는 아동 성학대를 유발하는 요인을 조기에 파악하여, 이들이 속해 있는 교육기관 내에서 성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적 방향을 설정하는데 매우 유용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아동 성학대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개입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질 것이다.

II. 아동 성학대와 사회문화적 태도에 대한 이해

1. 아동의 성학대

Glaser와 Frosh (1988)는 모든 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아동 성학대에 대한 보편적인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 가장 큰 이유는 “성적 (sexual)”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기준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문화나 사회에 따라 성에 대한 가치나 기준

이 다르며, 특히, 아동의 성에 대해서는 자녀양육방식이나 문화적인 태도 등 다른 변수들도 작용하기 때문에 더욱 복잡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아동의 성학대란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저해하거나 또는 저해할 잠재적 위험성이 있는 모든 종류의 성적인 경험”이라고 포괄적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좀 더 간단하게 “성인의 성적인 만족을 위해 아동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성학대의 정의에는 실제적으로 아동과의 성적인 접촉 뿐 만이 아니라, 아동에게 성적인 행동을 관찰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포함된다(Tower, 1996). 성학대의 경우는 다른 학대유형보다 정신적인 후유증이 매우 치명적이고, 그 영향 또한 장기적이다. LeVine과 Sallee(1999)는 아동에 대한 성학대는 아동으로 하여금 심리정서적 문제, 낮은 자존감, 의존성 강화, 성에 대한 비정상적인 신념, 도덕성 발달의 저해 등 많은 부정적 영향을 초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많은 경험적 연구들은 성학대를 경험한 아동들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나타낼 뿐만이 아니라, 성인이 된 이후에도 정상적인 부모로서의 역할수행이나 부부관계의 문제 및 사회, 경제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Banyard, 1997, Meyerson, Long, Jr., & Marx, 2002, Nolan, O'Flaherty, Turner, Keary, Fitzpatrick, & Carr, 2002, Parillo, Freeman, Collier, & Young, 2001, Ruscio, 2001, Swenson & Hanson, 1998, Varia, Abidin, & Dass, 1996).

성학대와 관련하여 더욱 심각한 문제는 성학대 사례의 발견이나 신고와 관련된 사항이다. 일반적으로 신체적 학대와는 달리 대부분의 성학대 사례는 피해자의 언어적 표출이나 신체적 징후를 통해서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에 성학대에 대한 구별은 주로 피해자나 가족구성원의 행동

에 의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Kemp(1998)는 병산의 비유를 통하여 아동 성학대 사례에 대한 신고현황을 설명하고 있는데, Kemp의 설명에 의하면, 실제로 보고되는 아동의 성학대 사례는 병산의 일각이라는 것이다. 아주 극소수의 사례만 CPS (Child Protective Services)에 보고되며, 실제로 많은 성학대 사례들은 관련분야에 있는 사람들은 알고 있지만, 통계에는 잡히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가장 심각한 사실은 병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절대적인 수치의 성학대 사례들은 단지 피해자와 가해자만 알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어린시절 성학대 피해자였던 성인들의 대부분은 자신의 성학대 사실을 타인에게 표현한 적이 없다고 보고했다(Finkelhor, Hotaling, Lewis, & Smith, 1990). 그러나, 최근에 와서 아동보호운동을 통한 아동의 권리 및 보호의 강조와, 여권운동의 활성화에 따른 성 또는 여성에 대한 사회적인 태도 및 가치관이 변화하면서 아동의 성학대 문제에 대해 가정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이슈로 인식하여 이에 대한 사회의 적극적인 대응이 강조되고 있다.

2. 아동의 성학대와 사회문화적 태도

Coale (1989)은 문화적인 태도와 가치, 사회적인 환경 등은 인간이 생활하는 현실의 중요한 부분으로, 이러한 실제적인 현실은 그 사람의 감정, 정서,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Collings(1997)에 따르면, 특정한 문제에 대해 개인이 가지고 있는 태도나 가치는 유사한 다른 문제에 대해서도 일반적으로 같은 반응을 보이는 경향이 있는데, 예를 들면, 강간에 대해 갖는 태도나 가치는 가정폭력이나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 등에 대해 갖는 태도와 매우 유사하다는 것이다. 즉, 한 개인이 갖는 태도나 가치

는 문화적, 사회적인 환경에 의해 형성되어지기 때문에 관련된 다른 상황에 대해서도 매우 유사한 태도를 보인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 문화적인 태도나 가치는 아동학대에 대한 개념정의에도 영향을 주어, 문화권마다 학대에 대한 인식이나 개입방법에 있어 상이함을 나타내고 있다 (Collier, McClure, Collier, Otto, & Polloi, 1999, Park, 2001).

아동의 성학대 문제 역시 그 사회의 성에 대한 사회화 과정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사회화와 관련하여 여성은 그들의 사회화 과정에서 아동 성학대의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여성은 자신보다 나이가 많거나, 체격이 크거나, 물리적으로 강한 성적 상대자를 선호하도록 사회화되어지고, 따라서, 어린 아동은 그러한 그림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Tower, 1996). 여성은 오히려 아이를 보호하고, 아이를 양육하는 모성적 기능을 강조하는 경향으로 사회화되어짐으로써, 아동 성학대의 가해자가 될 가능성은 낮아지는 것이다. Stark와 Flitcraft(1988)는 아동학대를 매맞는 여성에 대한 프리즘을 통해 사회문화적 요인에 의한 성적체감과 남성의 권위의 문제로 설명하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아동을 학대하는 어머니들이 갖는 공통적인 특성은 그들 역시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아동학대를 해결하는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여성의 세력화(female empowerment)”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바로 사회문화적 환경의 변화가 아동학대문제의 주요 해결책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고 하겠다.

Thomlison(1997) 역시 아동학대의 위험요인들을 분석하면서 지역사회 수준에서 아동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바로 그 지역사회의 가치와 규범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성적인 관계에서 남성의 우월성에 대한 고정관념, 아동을 향한 성적관심에 대한 사회적 관대함, 여성평등에 대한 장벽 등 문화적으로 인정되는 태도나 행동은 명백하게 성학대의 역학구조를 지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규범이나 가치는 문제를 해결하고 발전적인 기회를 추구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결국 아동을 위험상황에 처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Collings(1997)는 성학대에 대한 사회적 태도 역시 이러한 문화적인 가치나 고정관념 등에 의해 형성된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이는 그 사회의 문화에 따라 성에 대한 역할과 기대가 주어지고, 이것이 결국 한 개인의 성에 대한 정체감을 형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다.

아동 성학대에 대한 사회화 이론(Socialization Theory of Sexual Abuse)은 아동의 성학대 문제를 이러한 사회문화적 산물로서 설명하고 있다. 즉, 개인의 행동이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은 바로 그 개인이 살고 있는 외부환경적 요인이라는 것이다. 이 이론에서는 아동의 성학대 문제를 사회화와 관련하여 심리적, 사회적 수준에서 설명하고 있다. 심리적 측면과 관련하여서는 가해자가 가지는 성(sex) 또는 성학대에 대한 지식, 생각, 태도 등이 성학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가 될 수 있으며, 사회적 측면과 관련하여서는 사회경제적 상태, 종교적 배경, 직업의 종류, 교육수준, 인종, 연령 등이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이러한 심리적, 사회적 차원의 모든 변수들은 그 사회가 가지는 가치나 태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이 이론은 성학대 문제를 남성 가해자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남성의 사회화 과정과 관련시켜 설명하고 있는데, 즉, 남성스러움을 강조하는 사회문화적 규범들이

남성의 성적인 요소들을 성희롱, 성폭행, 성학대로 전환시키는 것을 촉진한다는 것이다. 또한, 사회적 고립, 남성중심의 가족구조, 이혼, 재혼의 증가, 성적 규범의 문란 등을 포함하는 사회적 요인들이 아동의 성학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Tzeng, Jackson, & Karlson, 1991).

아동 성학대에 대한 사회적 태도와 관련한 기존의 연구들은 이러한 사회적, 문화적인 요소들이 실제로 성학대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임을 입증하고 있다. Maynard와 Wiederman(1997)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아동 성학대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고자 했는데, 연구결과 사회문화적 요인들이 이들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 이 연구에서 조사대상자들은 아동과 성인과의 성관계에 있어 동성간의 성관계가 이성과의 성관계에 비해 더 심각한 학대라고 인식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동성연애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는 문화적인 요인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연령과 관련하여 대학생들은 아동과 성인과의 성적인 관계에 대해 고학년 아동에 비해 저학년 아동과의 성관계가 보다 심각한 학대행위라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 경우 가해자인 성인에 대한 책임이나 비난정도도 고학년 아동에 비해 훨씬 높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일반적으로 아동 성학대에 있어서 성인에게 그 책임과 비난을 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만, 고학년 아동의 경우 성학대 상황에 대해 어느 정도 아동자신에게도 그 책임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Hetherton과 Beardsall(1998)은 아동의 성학대에 대한 사회, 문화적인 태도는 성학대 가해자에 대한 개입이나 처벌과정에서도 반영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여성에 의한 아

동 성학대는 일반적인 문화규범에서 매우 벗어난 뿐만이 아니라, 여성의 성역할에 대한 뿌리 깊은 가치와도 상반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여성에 의한 아동 성학대 문제는 비교적 소홀히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이들은 아동학대문제에 개입하는 경찰과 사회사업가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성학대 가해자가 여성일 경우와 남성일 경우에 개입과정에 차이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개입하는 전문가의 성별에 따라서도 문제에 대한 개입 및 처리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사회, 문화적으로 학습되거나 인식되고 있는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성학대 발생시 개입과정에서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England와 Thompson(1988)은 성학대 피해아동과 그 부모 및 피해아동의 교사들에 대한 면접조사를 통해 아동 성학대 발생과 관련되어 사회문화적 영향에 의해 일반적으로 잘못 인식되어진 6가지 신화(myths)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1) 아동 성학대는 발생빈도가 매우 낮으며, 그 대부분이 교육수준이 낮은 가정에서 발생하고 있고, 2) 성학대는 가해자가 피해아동에 대해 성적으로 집착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며, 3) 성학대 가해자는 피해아동이 전혀 모르는 낯선 사람이고, 4) 아동 성학대는 성의 해방으로부터 기인하는 현대적인 현상이며, 5) 아동 성학대는 단순히 일회성에 그치는 폭력적 사건이고, 6) 피해아동이 성인과의 성행위를 임의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 등의 신화들이 그것이다. England와 Thompson은 이러한 신화는 사회문화적 요인들의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서, 이는 아동 성학대의 현실을 왜곡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뿐만이 아니라, 성학대 사례의 보고에서부터 상담 및 개입과정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동 성학대를 담당하는

상담자들이나 치료자들은 특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이에 대한 교육과 인식의 전환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Tarnya와 Lee(1996) 역시 성폭력에 대한 신화나 고정관념과 관련하여 244명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성별과 연령에 따라 통계적으로 다른 수준의 성폭력과 관련된 고정관념을 갖고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Tarnya와 Lee에 따르면, 남학생들이 여학생에 비해 강제된 성행위에 훨씬 더 관대하며, 성폭행에 대한 그릇된 고정관념이나 편견이 더 강한 것으로 밝혀졌다. 연령에 있어서도 어릴수록 더 부정적인 수준의 고정관념과 편견을 갖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사회문화적인 요인들이 성폭력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고 보여지며, 이는 그릇된 성폭력에 대한 태도에 관한 교육 및 사회적 개입은 어릴 때부터 이루어지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며, 상대적으로 남학생들에게 더 우선적으로 강조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

다고 하겠다.

이러한 기존의 연구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아동의 성학대에 대한 태도는 그 사회가 가지는 가치, 기대, 문화 등의 요인들과 밀접하게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보여지며, 따라서, 아동을 성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회문화적 태도를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유추해 볼 수 있겠다. 이처럼 아동의 성학대와 관련하여 사회문화적인 요인들의 영향이 중요하다면, Fontes(1995)가 지적한 것처럼, 반대로 아동을 성학대로부터 보호하거나, 성학대를 경험한 아동들이 회복하는 데 있어서 사회문화적인 요인들은 매우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아동 성학대 문제에 대한 치료 및 예방영역에 있어 다양한 사회문화적 요인을 파악하고, 이러한 요인들을 문제해결을 위한 긍정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전환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관심의 영역이 되어야 할 것이다.

Ⅲ. 조사방법

1.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

본 연구는 고등학교와 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아동의 성학대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조사대상자의 지역적인 분포를 고려하여 서울, 경기, 강원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선정은 비확률 표집방법 중 유의적 표집방법 (purposive sampling)을 사용하였고, 성별에 따른 비교를 위해 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 각각 여학생 50명, 남학생 50명을 조사대상

에 포함시킴으로써 총 211명의 학생이 조사에 참여하였다. 조사방법은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수업시간에 해당교사 및 교수의 협조를 얻어 연구보조원이 조사내용 및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학생들이 설문지를 작성한 후 회수하는 집단조사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자료 수집은 2002년 3월 한 달간 실시되었으며, 실제로 회수된 설문지는 211부였으나, 응답이 부실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총 200부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분석에서 제외된 11부는 전체 조사대상자중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비율이며, 초기분석과정에서

이를 제외한 것이 통계적으로 전혀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어 이들 11부를 최종분석에서 제외하였다.

2. 조사도구

본 연구를 위한 조사도구는 Collings(1997)의 “Child Sexual Abuse Myth Scale” (이하 CSA Myth Scale)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아동의 성학대에 대한 신화(myths)와 고정관념(stereotypes)에 대해 수용하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것으로, 일반적으로 아동의 성학대에 대한 태도

를 측정하는데 사용되는 척도이다. 아동의 성학대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적 요인들은 매우 다양하지만, 아동 성학대에 대한 논의가 거의 전무한 현 상황에서는 기초자료로서의 이러한 일반적인 태도조사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 성학대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조사를 위해 아동 성학대와 관련된 3가지 주요 요인(factors)에 대한 신화와 고정관념을 측정하는 Collings의 CSA Myth Scale을 사용하고자 한다. Collings의 척도개발 연구에 의하면 CSA Myth Scale은 .764의 내적일치도(Cronbach's alpha)와 .874의 신뢰

〈표 1〉 Child Sexual Abuse Myth Scale

문항번호	문항내용
1	아동본인이 원하고, 아동에게 신체적으로 즐거움을 주는 아동과 성인과의 성적인 접촉은 학대라고 할 수 없다.
2	성인과의 성적인 접촉은 나중에 아동의 심리적 발달과 성적인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3	대부분의 아동의 성학대는 잘 모르는 낯선 사람에게 의해 발생한다.
4	성적인 자극을 유발하는 행동을 하는 아동들에 대해 성인들이 성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아동들에게도 책임이 있다.
5	힘이나 협박 등이 배제되고, 실제적인 성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아동과 성인과의 성적인 접촉은 아동에게 심각한 정신적인 문제를 초래하지 않을 것이다.
6	남편과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유지하지 못하는 여성은 만약 남편이 좌절감을 느끼고, 자신의 아이들로부터 성적인 만족을 추구하려고 할지라고 이에 대한 어느 정도의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
7	아동의 성학대는 주로 가난하고, 문제가 많은 불안정한 가정에서 발생한다.
8	아동에게 실제로 해로운 것은 성인과의 성적인 접촉이 아니라, 그 사실이 공개되었을 때 초래되는 사회적인 비난이다.
9	많은 아동들은 자신의 이성의 부모와 성적인 관계를 원하는 무의식적인 바램이 있고, 이것이 아동으로 하여금 무의식적으로 성학대의 위험을 초래하는 방식으로 행동하게 한다.
10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다니는 청소년기의 여자아이들은 성적으로 학대받기를 은근히 바라고 있다.
11	동성애자 부모 밑에서 자란 아동들은 정상적인 부모 밑에서 성장한 아동들보다 성학대를 당할 위험성이 높다.
12	남자아이들은 여자아이들보다 성인과의 성적인 접촉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후에 정서적인 후유증이 여자아이들보다 덜 심각할 것이다.
13	아동의 성학대는 실업, 빈곤, 알콜중독 등의 사회문제에 의해 발생한다.
14	성학대 당하는 사실을 말하지 않는 아동들은 성적인 접촉을 계속 원하고 있는 것이다.
15	성에 대해 보다 잘 알고 있는 고학년 아동들은 성인들이 가하는 성적인 행위에 대해 강력히 저항할 책임이 있다.

도(test-retest reliability)를 보였고, 유사한 척도와 의 수렴타당도와 판별타당도에 있어서도 만족할 만한 결과를 보여 주었다. Collings는 총 15개의 문항으로부터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통해 3가지 요인들을 추출했는데, 그 요인들은 1) 성학대 비난책임에 대한 전가(Factor I : blame diffusion), 2) 성학대의 학대성에 대한 거부(Factors II : denial of abusiveness), 3) 엄격한 학대 고정관념(Factor III : restrictive abuse stereotypes) 등이다.

본 척도를 조사대상자에게 사용하기 위해 연구자가 이를 번역한 후, back-translation 과정을 통해 측정도구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설문문항에 대한 조사대상자의 이해도 및 정확성을 위해 예비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설문문항을 수정한 후 최종조사에 사용하였다. 한글 번역판 CSA Myth Scale 역시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회문화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Collings의 연구와 상당히 유사한 수준의 내적일치도(Cronbach's alpha = .71)와 요인구조(factor structure)를 보여주고 있다. 총 15문항으로 구성된 CSA Myth Scale은 아동의 성학대에 대해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한 조사대상자의 의견을 묻는 내용들로 이루어지고 있다. 각각의 문항에 대한 응답은 '전적으로 부정 (1점)'에서 '전적으로 동의 (5점)'에 이르는 5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각 항목에 동의하는 정도가 높을 수록 아동 성학대에 대해 부정적인 신화와 고정관념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기존에 한국사회에서 아동의 성학대에 대한 태도 조사가 전무한 상황에서 청소년들이 가지는 성학대에 대한 일반적 태도를 검토하는데 연구의 초점을 두고 있기에, 설문지는 CSA Myth Scale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조사대상자와 관련해서는 일반적 특성에 관한 기초문항들(성별, 연령, 교육 수준, 가족 부양자의 직업군 등)만을 포함하였다. CSA Myth Scale의 각 항목은 <표 1>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3. 분석방법

연구의 단계적 진행에 따라 다수의 분석방법이 사용되었는데, 우선 측정도구(Collings의 "Child Sexual Abuse Myth Scale"의 한글 번역판)의 내적 일치도를 검증하기 위해 Cronbach's alpha를 사용한 신뢰도 분석이 시도되었으며,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적 통계, T-검증, 그리고, 분산 분석이 이루어졌다. 마지막으로, 위계적 다중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을 사용하여 일련의 독립변인들이 종속변인(CSA Myth Scale)에 미치는 영향과 그들의 상대적 영향력의 변화를 고찰하였다.

IV. 조사결과 분석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2>에서 보여지듯이, 성별과 교육수준은 균등하게 (각각

50%)구성되어 있고, 연령분포도 15세부터 19세까지의 고등학생 그룹(평균 17세)과 20세 이상에서 30세 이하의 대학생 그룹(평균 23.6세)이 각각 50%씩 균등하게 차지하고 있다. 가족 부

양자의 직업으로는 일반사무직, 기술직, 상업이 조사대상자의 약 58.5%를 차지함으로써 다수를 이루었고, 그 다음으로 고위 행정관리직 및 전문직(21%)과 기술노동직(14.5%)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단순노동 및 일용직은 6%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고등학생		대학생	합 계
성 별	남	50(50%)	50(50%)	100(50%)	
	여	50(50%)	50(50%)	100(50%)	
연 령	평 균	17.00	23.60		
	표준편차	1.25	2.28		
가족 부양자의 직업	1. 고위 행정관리직, 전문직		20(20%)	22(22%)	42(21%)
	2. 일반사무직, 기술직, 상업		60(60%)	57(57%)	117(58.5%)
	3. 기술노동직		13(13%)	16(16%)	29(14.5%)
	4. 단순노동직, 일용직		7(7%)	5(5%)	12(6%)

2. 아동 성학대에 대한 일반적 태도

아동 성학대에 대한 일반적 태도와 관련하여, <표 3>은 각 문항들의 기술통계를, <표 4>는 15개의 각 문항이 어떻게 3개의 요인군으로 분류되는지와 그 각각의 기술통계를 보여주고 있다.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의 결과와 그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척도 개발자인 Collings의 견해(문항4를 두 개의 요인군에 동시에 포함시키고 요인간의 상관관계가 없다고 가정)와 본 연구자들의 견해(문항 4를 한 요인군에만 속하도록 하고 요인간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가정)에 다소 차이가 존재하나, 향후 비교연구를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Collings의 요인모형을 그대로 분석에 사용하기로 하였다.

먼저 <표 3>은 각 문항들의 기술통계를 보여 주고 있는데, 앞서 측정도구 부분에서 언급하였 듯이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전적으로 부정(1점)’에서 ‘전적으로 동의(5점)’에 이르는 5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문항에 동의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아동의 성학대에 대한 태도에 있어 부정적인 신화와 고정관념이 강하게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우선 응답자의 총 문항점수(15문항)의 평균값(평균= 2.50)은 “부정”과 “잘 모르겠음”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를 기준으로 가장 강한 부정적인 신화와 고정관념을 보여주는 문항들로는 문항15(평균=3.69), 문항13(평균=3.09), 문항11(평균=2.77), 문항6(평균=2.76) 등이었다. 문항15는 성에 대해 비교적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보여지는 고학년 아동이 성학대의 피해자인 경우 그 아동에게도 성학대 발생의 부분책임이 있는지, 그리고, 고학년 아동일 경우 학대성이 감소 또는 면제되는지를 측정하기 위한 질문인데, 다른 문항과는 달리 상당히 많은 응답자(63.5%)가 이 문항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대성이 피해아동의 연령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피해아동의 나이가 어릴수록 더 심각한 성학대로 여기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며, 동시에 고학년 아동의 성학대에 대한 피해를 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하겠다. 또한, 응답자들은 성학대의 피해자일지라도 고학년 아동의 경우는 성학대 발생의 부분책임이 있다고 여기는 고정관념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성학대에 대한 성인가해자의 책임을 아동에게 일부 전가시키는 잘못된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Maynard와 Wiederman(1997)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고 있다. 문항13의 아동 성학대와 실업, 빈곤, 알콜중독 등의 문제와의 관련성을 묻는

〈표 3〉 각 문항들에 대한 기술통계

Factor	F2	F2	F3	F1&F2	F2	F1	F3	F3	F1	F1	F1	F3	F1	F1	F2
문항번호	Q1	Q2	Q3	Q4	Q5	Q6	Q7	Q8	Q9	Q10	Q11	Q12	Q13	Q14	Q15
평균	2.51	2.13	2.42	2.45	1.86	2.76	2.57	2.69	2.47	1.91	2.77	2.63	3.09	1.57	3.69
표준편차	1.22	1.30	1.04	1.12	0.94	1.29	1.07	1.14	1.01	0.84	0.89	0.97	1.00	0.86	1.14

질문에 대해 응답자들의 41.5%가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반응은 아동의 성학대 문제를 특정 문제상황에 따른 부수적인 결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Daro(1988)의 아동의 성학대 문제는 사회, 문화, 경제적인 영역의 모든 분야를 넘나드는 이슈라는 지적을 상기시킬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고 하겠다. 문항11의 경우 동성애자 부모 밑에서 자란 아동들이 양성 부모 밑에서 자란 아동들보다 학대의 위험성이 높을 것이라는 고정관념을 묻는 문항에 대해 응답자의 49%가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고, 다른 문항에 비해 비교적 소수만(33.5%) 고정관념을 부정했다. 이는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응답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동성애 역시 성학대의 비난책임에 대한 전가요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 문항과는 반대로 아동의 성학대에 대해 응답자들의 긍정적인 성향을 보여준 문항들로는 문항 14 (평균=1.57), 문항 5 (평균=1.86), 문항 10 (평균=1.91) 등을 꼽을 수 있는데, 이 문항들은 척도의 전체 평균점수 (2.50) 보다도 상당히 낮은 평균을 보여주는 문항들이다. 문항 14는 성학대 피해아동의 침묵을 성 접촉을 계속 원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잘못된 인식에 대한 질문이며, 문항 5는 힘이나 협박 등이 배제되고 실제 성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성 접촉이 아동에게 정신적인 문제를 초래하지 않을 것이라는 고정관념에 대한 질문이다. 또한, 문항 10은 노출이 심한 청소년기 여자아이들이

성적 학대를 은근히 바라고 있다는 진술에 대한 태도를 묻는 질문인데, 각 문항 응답자의 약 80% 이상이 이런 신화와 고정관념을 부정함으로써 이 문항들에 대한 태도는 총 문항의 평균 (2.50)보다 상당히 낮은 긍정적인 수준에서 형성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4>는 척도의 15문항에서 도출된 3가지 요인들 (성학대 비난책임에 대한 전가, 성학대의 학대성에 대한 거부, 엄격한 학대 고정관념)에 관한 기술적 통계를 보여주고 있다. 우선 세 요인 중 응답자가 가장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 요인은 “엄격한 학대 고정관념 (평균=2.68)”으로, 이 요인은 다섯 문항 (문항3, 7, 8, 12, 13)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균에 있어서 “학대성에 대한 거부 (평균=2.53)”요인보다는 0.15 정도, “성학대 비난책임에 대한 전가 (평균=2.32)”요인보다는 0.36 정도 더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요인 중 응답자의 태도가 가장 긍정적인 요인은 “성학대 비난책임에 대한 전가”요인으로 (평균=2.32), 이는 6개의 문항 (문항 4, 6, 9, 10, 11, 14)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문항의 평균보다는 약 0.20 정도, 다른 두 요인보다는 각각 0.20 와 0.36 정도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 세 요인의 평균들이 차이를 보이는지를 검정하기 위해 One-way ANOVA를 한 결과, 요인간의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고(F=16.662, df=2, p=.000), 이는 응답자들이 각각 다른 세 요인에 대해 다소 다른 태도를

〈표 4〉 요인 (factor)에 대한 기술통계

	Factor 1 (6 문항 : Q4,Q6,Q9,Q10,Q11,Q14)	Factor 2 (5 문항 : Q1,Q2,Q4,Q5,Q15)	Factor 3 (5 문항 : Q3,Q7,Q8,Q12,Q13)
평 균	2.32	2.53	2.68
표준편차	0.53	0.67	0.66

견지하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3. 이동 성학대에 대한 집단간 태도 비교

앞서 살펴본 척도의 문항들과 요인들이 응답자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평균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t-검증 및 분산 분석이 실시되었다. 집단의 수가 둘 (교육수준과 성별)인 경우는 t-검증을, 셋 이상 (가족 부양자의 직업군)인 경우는 분산분석을 이용하였다.²⁾

<표 5>는 조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교육수준, 성별, 가족 부양자의 직업군)들과 측정 도구와의 t-검증 및 분산분석의 결과이며, 이는 다른 변인들이 통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구학적 변인이 척도의 세 요인들과 전체평균 (문항 1에서 문항15까지의 전체문항)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것이다.³⁾ 우선 교육수준의 차이가

2) 세 개의 독립변인(교육수준, 성별, 가족 부양자의 직업군)을 한꺼번에 수용하고, 그들간의 상호작용(interaction)도 검증할 수 있는 2×2×4의 다원변량분석(factorial design 및 factorial analysis of variance)도 시도가능하나, 이 경우 16개의 cell 중 4개(25%)의 cell이 5개 이하의 빈도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어 이는 왜곡된 측정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를 사용하지 않기로 하였다.

3) 인구학적 변인 중 연령이 분석에서 제외된 이유는 변인의 구간이 너무 많아 (15세부터 30세까지 16구간) 분산분석의 독립변인으로는 부적합하고, 이미 예비 분석에서 연령과 교육수준의 상관관계가 0.87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이는 곧 본 연구의 표본에서는 교육수준과 연령이라는 두 변인 사이에

척도의 요인들과 총 평균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연령이 낮은 고등학생(평균연령=17.0세) 집단이 척도의 총 평균과 하부 세 요인 모든 부문에서 연령이 높은 대학생 집단(평균연령=23.6세)보다 아동의 성학대에 대해 부정적인 신화와 고정관념을 더 강하게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모든 평균의 차이는 1%의 유의수준($\alpha=.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별 두 집단이 가장 큰 태도의 차이를 보이는 것은 척도의 세 번째 요인("엄격한 학대 고정관념")으로 고등학생들이 대학생들의 평균보다 약 0.4(총점기준으로는 약 2점) 정도 더 부정적인 신화와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등학생에 비해 대학생들의 경우 전체적으로 교육기간의 증가 및 개인의 성숙도가 높아짐으로써 아동의 성학대에 대한 부정적인 신화와 고정관념을 완화시키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며, 본 연구의 변인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동료 집단과의 상호작용이나 사회화의 정도 등도 두 집단간의 차이를 나타내게 한 이유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진다. 특히, 문항 3, 4, 8, 12는 이 두 집단간의 차이가 보다 명확하게 나타나는데, 이는 대학생 응답자가 고등학생 응답자에 비해 아동의 발달특성에 대해 보다 잘 이해

아주 강한 상관관계가 있어 두 변인들의 속성이 중복되고 변별력이 거의 없으며, 이후 행해질 회귀 분석모형에서도 두 변인이 동시에 포함될 경우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의 문제를 가져올 것이므로 둘 중 하나만을 취하기로 결정하였다.

<표 5> 인구학적 특성과 척도와의 t-검증 및 분산 분석

변수명	LEVEL	FACTOR 1	FACTOR 2	FACTOR 3	전체평균(Q1-Q15)
교육	고등학생	2.46	2.67	2.87	2.65
	대학생	2.18	2.38	2.48	2.34
		(t=3.853, p=.000)**	(t=3.314, p=.002)**	(t=4.347, p=.000)**	(t=4.856, p=.000)**
성별	남학생	2.40	2.60	2.75	2.58
	여학생	2.24	2.45	2.61	2.42
		(t=2.249, p=.026)*	(t=1.635, p=.104)	(t=1.464, p=.145)	(t=2.492, p=.014)*
부양자 직업	단순노동직/ 일용직	2.21	2.62	2.47	2.41
	기술노동직	2.28	2.34	2.77	2.45
	일반사무직, 기술직, 상업	2.31	2.52	2.69	2.50
	고위행정관리직, 전문직	2.39	2.64	2.64	2.55
		(F=.486, p=.692)	(F=1.236, p=.298)	(F=.633, p=.595)	(F=.382, p=.766)

**p<.01 *p<.05

하고 있기에 나타나는 결과라고 보여진다.

아동 성학대에 대한 신화와 고정관념을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표 5>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남학생들이 척도의 세 하위 요인과 전체 평균에서 여학생들보다 부정적인 신화와 고정관념을 더 강하게 가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Tarnya와 Lee(1996)의 연구결과와도 유사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두 집단간 평균의 차이가 가장 많이 나는 요인은 첫 번째 요인("성학대 비난책임에 대한 전가")으로 남학생들의 평균이 여학생들보다 약 0.16 정도 더 부정적인 방향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 차이는 척도의 총 평균점수에서의 남녀간 차이(평균의 차이=0.16, t=2.492, p=.014)와 함께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t=2.249, p=.026) 차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 성학대에 대한 태도에 있어 성별에 따른 차이가 존재함을 의미하며, 특히, 남학생이 아동 성학대에 대해 보다 강한 부정적인 신화와 고정관념을 가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 성학대에 대한 태도 변화를 위한 개입이 요구될 때 성별에 따라 개입의 내용과 강도가 고려되어야 함을 암시해주고 있다.

척도의 세 요인들과 전체평균이 가족 부양자의 직업군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One-way ANOVA의 결과는 앞의 두 t-검증에서처럼 분명하고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지는 않다. 척도의 세 요인과 전체 평균에 있어 네 집단 (단순노동 및 일용직, 기술노동직, 사무직/기술직/상업, 그리고 고위행정관리직/전문직) 사이에 약간씩의 차이가 존재하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근소한 차이(0.03에서 0.08)이기는 하지만, 척도의 전체평균과 첫 번째 요인("성학대 비난책임에 대한 전가")에서는 가족부양자의 직업군이 사회경제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을수록 아동 성학대에 대한 신화나 고정관념에 있어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결과가 관찰되었

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본 연구에서는 각 집단간의 평균차이가 매우 작고, 집단 구성원의 비율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함으로 (부양자의 직업군중 단순노동 및 일용직은 전체응답자의 6% vs. 일반사무 및 기술직은 약 59%), 보다 정확한 해석은 집단 구성비가 유사한 연구결과와의 비교를 통해서 가능하기에 후속연구의 과제로 제안할 수 있겠다.

4. 아동 성학대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

마지막으로 일련의 독립변인(교육수준, 성별, 가족 부양자의 직업군)들이 종속변인(CSA Myth Scale의 평균 점수)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기 위해 위계적 다중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이 사용되었다.⁴⁾⁵⁾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6>에서 제시되고 있는데, 첫 번째 모델은 하나의 독립변인(교육수준)이 종속변인(CSA Myth Scale의 평균 점수)을 예측하는 모델이고(모델 1), 두 번째

모델은 교육수준에 성별이 독립변인으로 추가된 모델이며(모델 2), 세 번째 모델은 모델 2에 가족부양자의 직업군이 추가된 모델이다(모델 3). 우선 각 모델의 F값과 그와 연결된 확률값(P값)이 보여주듯이 세 모델 전부 종속변인을 설명하는 유의한 모델이라고 여겨진다. 이를 단계별로 살펴보면, 교육수준 하나만이 독립변인으로 투입된 모델 1에서는 교육수준이 높아짐에 따라(고등학생에서 대학생으로의 변화) 종속변인(CSA Myth Scale의 평균 점수)의 평균점수가 약 .31 정도 낮아지며, 이 차이는 1%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t=-4.856, p=.000$)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의 성학대에 대한 부정적인 신화와 고정관념이 교육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결과는 아직 다른 독립변인들(성별과 가족 부양자의 직업군)이 통제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결과이며, 교육수준 하나의 변인만으로도 종속변인의 총 분산 중 약 10.6%를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2는 교육수준에 또 하나의 독립변인인 성별이 추가되었는데, 이 모델에서는 교육수준과 더불어 성별이 종속변인을 예측하는 유의한($t=-2.634, p=.009$) 독립변인으로 밝혀졌고, 교육수준이 통제되었을 때 성별의 차이에 따라(남학생에서 여학생으로의 변화) 종속변인(CSA Myth Scale의 평균 점수)의 평균 점수가 약 .17정도 낮아지는, 즉, 교육수준이 통제된 후, 남학생들에 비해 여학생들이 아동의 성학대에 대한 부정적인 신화와 고정관념이 .17정도 더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모델 1에서와 같이 모델 2에서도 교육수준의 종속변인에 대한 영향력은 거의 변함없이 유지되며, 추가된 성별이라는 독립변인에 의해 종속변인의 분산이 약 3% 정도 더 설명되어졌다. 이 3%의 변화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

- 4) 세 변인이 모두 포함된 최종 회귀분석결과에 있어서는 기존의 다른 회귀분석방법들이 위계적 다중회귀분석과 동일한 결과치를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이 분석법을 채택한 이유는 변인의 투입순서를 통제하여 그들의 상대적 영향력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함이며, 동시에 각 회귀모델(변인 1개인 모델, 변인 2개인 모델, 변인 3개인 모델)들의 차이를 상호비교하기 위함이다.
- 5) 앞서 밝혔듯이, 독립변인 중 연령이 회귀모델에서 제외된 이유는 연령과 교육수준과의 상관관계가 매우 높아서($r=0.87$) 두 변인의 속성이 중복되고, 두 변인이 동시에 회귀모형에 포함될 경우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야기시켜 왜곡된 추정치(biased parameter estimation)를 산출하기에 두 변인 중에서 연령과 교육정도의 속성을 동시에 가졌다고 보여지는 교육수준(평균연령 17세인 고등학생과 23.6세인 대학생)만을 취하기로 결정하였다.

〈표 6〉 위계적 다중회귀 분석

	종속변인	독립변인	B	t value	P	Beta	F statistic	R2	R2 Change
모델 1	CSA 평균점수	교육	-0.309	-4.856	.000**	-0.326	23.584**	.106**	
모델 2	CSA 평균점수	교육	-0.309	-4.929	.000**	-0.326	15.516**	.137**	.030
		성별	-0.165	-2.634	.009**	-0.174			
모델 3	CSA 평균점수	교육	-0.311	-4.964	.000**	-0.328	11.047**	.145**	0.08
		성별	-0.168	-2.682	.009**	-0.177			
		가족부양자의 직업군	0.005	1.337	0.183	0.088			

**p<.01

change=6.939, df=1, p=.009). 두 독립변인의 종속변인에 대한 상대적인 영향력의 크기를 표준화된 계수(Beta)의 절대값으로 살펴본 바, 교육수준의 변화(-.326)가 성별의 변화(-.174)보다 더 큰 차이를 종속변인에 가져오는 것으로 밝혀졌다.

모델 3은 모델 2(교육수준+성별)에 가족 부양자의 직업군이 독립변인으로 추가되었는데⁶⁾, 여기서는 이전 모델들에서 유의한 독립변인이었던 교육수준(t=-4.964, p=.000)과 성별(t=-2.682, p=.009)은 여전히 유의하게 종속변인을 예측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나, 새로 추가된 가족부양자의 직업군이라는 독립변인은 교육수준과 성별이 통제되었을 경우 5%의 유의수준에서 종속변인을 예측하는 데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관찰되었다(t=1.337, p=.183). 또한, 추가된 가족 부양자의 직업군에 의해 0.8% 정도의 종속변인의 분산이 더 설명되어지는데, 이 변화 역시 통계

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F change=1.786, df=1, p=.183). 표준화된 계수(Beta)의 절대값으로 살펴본 독립변수의 상대적인 영향력의 크기에서도 가족부양자의 직업군(.088)은 교육수준 (-.328)이나 성별(-.177)보다 종속변인에 훨씬 약한 영향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세 가지 모델에서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교육수준과 성별은 아동 성학대에 대한 부정적인 신화나 고정관념을 예측하는 유의한 변인들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 둘 중에서도 특히 교육수준의 차이가 성별의 차이보다도 태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두 변인들은 종속변인에서 관찰된 총 변량의 약 14% (R2 =.137)를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추가된 가족 부양자의 직업군은 교육수준 및 성별과 함께 분석모형에 투입되었을 때, 종속변인을 예측하는 유의한 변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응답자가 속한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보다는 응답자의 교육수준과 성별의 차이가 아동 성학대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인임을 의미하고 있다고 하겠다.

6) 가족 부양자의 직업군을 단순히 명명적으로 간주하여 dummy coding없이 회귀분석의 독립변인으로 사용이 불가하다는 일부의 지적이 가능하겠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 변인이 하위의 단순노동직 및 일용직으로부터 상위의 고위행정관리직 및 전문직으로 조사되었고, 이를 서열적으로 간주하였으므로, 별도의 dummy coding없이 회귀분석에 투입하였다.

V. 결론 및 제언

아동 성학대는 어느 시대나 사회를 막론하고 존재하는 사회문제이며, 이는 아동기에서 뿐만 아니라 성인이 된 이후에도 심각한 후유증을 동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동복지의 중요한 관심영역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적으로 아동의 성학대 문제를 언급하는 것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그동안 한국사회에서 이에 대한 학문적, 실천적 영역에서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성학대에 대한 문제는 문화적, 사회적 환경에 따라 이를 바라보는 태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때, 아동 성학대에 대한 우리사회의 인식과 태도를 점검하는 것은 향후 아동 성학대 문제를 예방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실천적 함의를 제공할 것으로 보여진다.

본 연구는 아동 성학대에 대한 청소년들의 태도를 조사함으로써 향후 아동 성학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Collings(1997)의 “Child Sexual Abuse Myth Scale”을 사용하여 남, 여 고등학생, 대학생 각각 50명씩 모두 2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아동의 성학대에 대한 신화와 고정관념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응답자들은 동의와 부정의 중간정도에 위치하고 있었다. 그러나, 응답자들은 고학년 아동의 성학대에 대한 피해는 덜 심각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고학년 아동의 경우에는 성학대 발생의 부분적 책임이 있다고 여기는 고정관념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또한, 아동의 성학대 문제를 빈곤이나 알코올중독 등 특정 문제상황의 부산물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본 척도를 구성하는 세 요인들(“성학대 비난책임에 대한 전가”, “성

학대의 학대성에 대한 거부”, “엄격한 학대 고정관념”)에 관한 결과에서 응답자가 가장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 요인은 “엄격한 학대 고정관념”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성학대의 학대성에 대한 거부”, “성학대 비난책임에 대한 전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응답자들은 아동의 성학대에 대한 신화와 고정관념에 있어 각각 다른 세 요인에 대해 다소 다른 태도를 견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인구학적 특성과 태도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교육수준과 관련하여 고등학생들에 비해 대학생들이 아동의 성학대에 대한 부정적인 신화와 고정관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성별에 따라서도 태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남학생들이 여학생들에 비해 아동 성학대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졌다. 교육수준과 성별은 회귀분석을 통한 조사결과에서 아동 성학대에 대한 태도를 예측하는 주요변인들로 나타나고 있었으며, 특히, 이 중에서도 교육수준의 차이가 태도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조사결과는 향후 아동 성학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몇 가지 중요한 함의를 제공하고 있다. 먼저, 본 연구의 결과는 아동 성학대 문제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본 연구의 조사결과에서 대학생들은 고등학생들에 비해 아동 성학대에 대한 신화나 고정관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교육기간의 증가와 함께 대학내의 다양한 교과과정을 통해 아동의 발달특성이나 사회문제에 대한 지식이나 이해의 증가에 의한 결과라고 보여진다. 따라서, 아동의 성학대 문제에 대한 교육이 보다 체계적

으로 초, 중, 고등학교의 정규 교과과정을 통해 제공되어진다면 아동 성학대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효과적일 뿐만이 아니라, 학대사건 발생시 보다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본 연구의 결과에서 고등학생과 대학생이 아동의 성학대에 대해 서로 다른 태도를 보인다는 사실은 아동 성학대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의 필요성과 함께, 제공되는 교육내용이 청소년들의 발달단계와 특성을 고려할 때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교육과정에서 특히, 남학생들에 대한 교육이 보다 강조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본 연구결과에서도 나타나고 있듯이, 남학생들이 여학생들에 비해 비교적 아동 성학대에 대한 보다 부정적인 신화와 고정관념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는 앞서 지적한 것처럼 성과 관련된 우리의 사회적, 문화적인 요인들이 이러한 태도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여진다. 실제로 아동학대의 가해자중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여성 가해자에 비해 절대적으로 높다는 사실을 상기할 때 (보건복지부 &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 2003) 남학생들에 대한 교육이 보다 우선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아동 성학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성학대 문제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증가와 함께 이러한 문제에 대한 공개적인 토론이나 논쟁을 활성화 할 것을 제안하고 싶다. 본 연구결과에서는 성학대 문제와 관련하여 대학생들이 고등학생들에 비해 비교적 고정관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대학생활에서의 사회화 정도나 집단내의 상호작용이 잠재적 설명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진다. Jones

(Daro, 1988, 재인용)에 의하면, 성학대 문제에 대한 공개적인 토론이나 논쟁은 성학대 문제 발생을 감소시킴과 동시에 이에 대한 신고를 증가시키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대중매체의 토론 프로그램이나 각종 세미나를 통해서 현재 우리 문화 속에서 허용되고 있는 아동의 성과 관련된 관습이나 행동들에 대해 공개적이고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아동의 양육 방식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이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아동에게 가장 바람직한 양육방식을 모색하려는 노력이 요구되어진다고 하겠다. 아동의 성학대에 대한 사회의 적극적이고 공개적인 관심 속에서 다양한 교육이나 정보의 제공을 통해 아동의 성학대에 대한 태도나 인식을 변화시키는 것은 이후의 발생할 가정폭력이나 성 역할 갈등 등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측면에서도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이다. 특히, 이들 청소년계층은 대부분 제도적 교육권내에 속해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교육은 그 효과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지므로, 앞으로 보다 다양하고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이 요구되어진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아동의 성학대에 대한 학문적, 실천적 논의가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아동 성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이끌어내는 데 의의를 두고, 기초적인 인구학적 특성만을 포함하는 연구를 중심으로 실시하였다. 그러나, 아동의 성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적 변인은 매우 다양하며, 이러한 다양한 변인 및 변인간의 역학관계에 관한 연구는 앞으로 아동의 성학대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개입 및 예방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지므로, 향후 후속연구에서 보다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제안한다.

참 고 문 헌

- 강현주(2001). 한국의 청소년 성의식에 관한 일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보건복지부,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2003). 2002년 전국 아동학대 현황보고서.
- Banyard, V.(1997). The impact of childhood sexual abuse and family functioning on four dimensions of women's later parenting. *Child Abuse & Neglect*, 21, 1095-1107.
- Center for Social Work Research(2002). *Children's Partnership Progress and Outcome Report*. TX :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 Coale, H.(1989). *A family systems approach to child abuse : The mental health professional*. In N. Barker (Ed.), *Child abuse and neglect : An interdisciplinary method of treatment* (pp.101-116). Iowa; Kendall/Hunt publishing company.
- Collier, A., McClure, F., Collier, J., Otto, C., & Polloi, A.(1999). Culture-specific views of child maltreatment and parenting styles in a pacific-island community. *Child Abuse & Neglect*, 23, 229-244.
- Collings, S.(1997). Development,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child sexual abuse myth scale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2, 665-674.
- Daro, D.(1988). *Confronting Child Abuse : Research for Effective Program Design*. NY : The Free Press.
- England, L., & Thompson, C.(1988). Counseling child sexual abuse victims.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66, 370-373.
- Finkelhor, D., Hotaling, G., Lewis, I., & Smith, C.(1990). Sexual abuse in a national survey of adult men and women : Prevalence, characteristics, and risk factors. *Child Abuse & Neglect*, 14, 19-28.
- Fontes, L.(1995). *Sexual abuse in nine north American cultures : Treatment and prevention*. CA : Sage Publications.
- Glaser, D., & Frosh, S.(1988). *Child sexual abuse*. Chicago; The Dorsey Press.
- Hetherington, J., & Beardsall, L.(1998). Decisions and attitudes concerning child sexual abuse : does the gender of the perpetrator make a difference to child protection professionals?. *Child Abuse & Neglect*, 22, 1265-1283.
- Kemp, A.(1998). *Abuse in the family : An introduction*. Brooks/Cole publishing company.
- LeVine, E., & Sallee, A.(1999). *Child welfare : clinical theory and practice*. IA : Eddie bowers publishing, inc.
- Maynard, C., & Wiederman, M.(1997). Undergraduate students' perceptions of child sexual abuse : effects of age, sex, and gender-role attitudes. *Child Abuse & Neglect*, 21, 833-844.
- Meyerson, L., Long, P., Jr., R., & Marx, B.(2002). The influence of childhood sexual abuse, physical abuse, family environment, and gender on the psychological adjustment of adolescents. *Child Abuse & Neglect*, 26, 387-405.
- Nolan, M., O'Flaherty, A., Turner, R., Keary, K., Fitzpatrick, C., & Carr, A.(2002). Profile of child sexual abuse cases in Ireland : an archival study. *Child Abuse & Neglect*, 26, 333-348.
- Parillo, K., Freeman, R., Collier, K., & Young, P. (2001). Association between early sexual abuse and adult HIV-risky sexual behaviors among community-recruited women. *Child Abuse & Neglect*, 25, 335-346.
- Park, M. S.(2001) The factors of child physical abuse in Korean immigrant families. *Child Abuse & Neglect*, 25, 945-958.
- Ruscio, A.(2001). Predicting the child-rearing practices of mothers sexually abused in childhood. *Child*

- Abuse & Neglect*, 25, 369-387.
- Stark, E., & Flitcraft, A.(1988). Women and children at risk : A feminist perspective on child abuse. *International Journal of Health Services*. 18, 97-118.
- Swenson, C., & Hanson, R.(1998). *Sexual abuse of children : assessment, research and treatment*. In J. Lutzker (Ed.) *Handbook of child abuse research and treatment* (pp.475-499). NY : Plenum.
- Tarnya, D., & Lee, C.(1996). Sexual assault : Myths and stereotypes among Australian adolescents, *Sex Roles*, 34 (11-12), 787-803.
- Thomlison, B.(1997). *Risk and protective factors in child maltreatment*. In M. Fraser (Ed.), *Risk and resilience in childhood*. Washington (pp. 50-72), DC : NASW Press.
- Tower, C.(1996). *Understanding Child Abuse and Neglect*. MA : Allyn & Bacon.
- Tzeng, C., Jackson, J., & Karlson, H.(1991). *Theories of child abuse and neglect : Differential perspectives, summaries, and evaluations*. Connecticut : Praeger.
- Varia, R., Abidin, R., & Dass, P.(1996). Perceptions of abuse : effects on adult psychological and social adjustment. *Child Abuse & Neglect*, 20, 511-526.